

# 불법도축장 짓도록 도운 일당 8명 벌미

설계와 감리 계약을 따낸 뒤 불법도축장을 짓도록 도운 시의원과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오히려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 승인을 내준 공무원 등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건축법을 위반한 도축장을 설계하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건축법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의원 A(62)씨와 회사 직원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도축장의 건축 허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 승인을 내준 혐의(공문서·변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C(57)씨 등 목포시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도축장을 시공한 건축주 D(55)씨와 A씨 등에게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2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목포시 옥암동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의원 A씨는 지난 2015년 7월께 석현동에서 대양산단으로 신축 이전하는 도축장의 설계와 감리 계약을 수주한 뒤 견본을 위반한 건축 설계를 한 혐의다.

또 직원 B씨에게 다른 사람의 토목 산업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축장 이전 사업 예산 등을 심의하는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설계와 감리 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를 통해 9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C씨 등 공무원 3명은 애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도축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용적률과 견본을 초과 설계한 사실을 모르고 도축장의 건축 허가를 내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된 설계 도면을 변경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또 건물 완공 뒤 건축사가 "건물에 문제가 많다"며 사용 승인 검사를 거부하자 '용적률, 견본, 높이 제한 등은 건축법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도축장은 사용 승인 검사 당시, 견본을 초과로 건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방화 구역 미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

## 모 시의원, 위반 설계·허위 감리보고서 작성

## 불법 행위 은폐·공문서 위조 공무원 등 적발

비배관 부분 충전 미비 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무원 C씨 등은 이를 보완하지 않고 사용 승인을 내줬다.

다만, 이 과정에서 뒷돈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도축장 이전과

관련해 기존 부지 주민과 신축 부지 인근 주민들의 찬성·반대 민원이 빚발쳤으며,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끼리 다툼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업 추진을 빨리 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축장의 건축주 D씨의 경

우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견본을 직접 시공했으며, 사진 허가 없이 견본의 높이와 위치를 변경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에는 목포시 정례식장 건축 허가 명목으로 1억4500만원을 받은 지역 신문 기사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이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 허가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어째는 앞이 캄캄하다 제주 지역에 이례적으로 옛새책 폭설이 이어진 가운데 8일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서 있는 돌하르방 얼굴에도 흰눈이 가득 쌓여 눈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 검찰, 채용비리 의혹 광주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8일 광주은행 본점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 내 3~4곳과 당사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광주은행 인사부 내 채용 관련 자료를 집중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 광주은행을 포함해 KB국민·KEB하나·BNK부산·DGB대구은행 등 5곳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은행 A 부행장보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광주은행은 당시 채용절차가 끝난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 부행장보와 인사담당 부장을 전보 조치

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퇴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1일 사과

문을 발표했다.

광주은행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광주은행 임원이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준청 기자

## 검찰, 강제추행 건설사 회장 약식기소

광주지검은 술에 취해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광주 지역 모 건설사 회장 A(61)씨를 약식기소법금 500만 원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한 도로의 승용차 안에서 B(36·여)씨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일식집에서 B씨를 포함한 4명의 여성과 술을 마셨으며 이후 서구 매월동 모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B씨의 몸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며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B씨와 관계된 C(46)씨를 불구속 구공판했다.

## 美주도 연합군, 시리아서 보복 공습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이 7일(현지시간) 시리아에서 친 정부 군대에 보복 공습을 가했다. 연합군이 시리아 정부 쪽을 공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리아의 친정부 성향 부대가 미군 지원을 받는 반군 '시리아 민주군'(SDF) 본부를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보복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연합군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는 군대가 SDF를 표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측 사상은 없다고 알려졌다.

SDF는 미국 지원을 받아 시리아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을 벌여 왔다. 시리아 정부군은 강 반대편인 데 이르에조르에서 활동 중이다.

시리아 정부는 연합군이 시리아의 주권을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시리아 내 IS가 거의 퇴치됐으므로 연합군이 철군해야 한다고 유엔에 요청해 왔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2014년부터 IS 퇴치를 목표로 온건 반군과 협력해 시리아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 반군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반군의 직접 충돌을 자제해 왔다.

아사드 정권의 우방인 러시아는 아사드의 동의 아래 2015년 9월부터 시리아에 군사 개입했다. 러시아는 미군이 IS 격퇴 작전이 마무리됐음에도 시리아 주둔을 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멕시코 국영 송유관 절도 극성, 1년간 1만 여건

멕시코의 국영 송유관에 대한 불법 절도행위가 2017년 한 해 동안 1만 363건이나 발생, 매일 평균 28건을 기록했다고 국영석유회사 페멕스(Pemex)가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페멕스는 송유관 절취건이 2016년의 6873건에 비해 지난해 50%나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숫자는 단순히 적발된 도유 탱에 의한 것 일뿐, 비밀리에 작동하고 있는 송유 파이프를 통해서 가솔린이나 디젤유를 연속해서 빼내는 양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기류는 불법적으로 안겨래 상을 통해 팔리며 심지어는 기존의 정상적인 주유소를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페멕스는 이미 70여개의 주유소가 도난 연료를 운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폐쇄 당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기술적인 감독과 순찰대의 증가를 통해서 도난 당한 연료 400만 갤런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 집계 따르면 2016년 페멕스는 절도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10억 달러에 달했지만, 2017년 손실액에 대한 통계는 페멕스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5년전만 해도 당국이 집계한 연간 도유 건수는 1635건에 불과했지만 마약밀매 조직과 중무장한 범죄 집단이 가세하면서 멕시코의 송유관 절도 건수는 헤마다 급증하고 있다.

송유관 도둑들은 파이프라인에 공구를 사용해 구멍을 뚫고 기름을 흡진 뒤 벨브와 호스 등을 재빨리 그 자리에 설치 한다. 그런 다음 소형 유조 트럭에서 275갤런 짜리 기름 통들에 연료를 채워 가지고 달아난다.

이렇게 도유가 발생한 곳은 기름 유출이나 송유관의 압력 저하,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 美 소비자고발 전문 기자, 몽둥이 공격당해

뉴욕시에서 인기 높은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의 TV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시내 브롱크스에서 취재 중에 야구 배트를 든 남자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WPIX-TV의 하워드 톱슨 기자와 존 프라스 사진기자가 6일 시내 맨턴트 구역의 한 자동차 판매소 앞길에서 테러를 당했으며 다음 날 용의자 호세 레브론-프리멘텔(36)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동차 판매소 앞에서 톱슨기자에게 야구 배트를 휘둘러 영영이 부분을 가격했으며 사진기자도 폭행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두 기자의 부상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용의자 레브론-프리멘텔의 직접 면담 취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를 대변해 줄 변호사가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하워드 톱슨 기자는 '도외취외 하워드'(Help Me Howard)란 인기 코너를 맡아서 시청자들을 대신해 집주인들이나 상가 소유자 등을 상대로 고발 프로그램을 취재해왔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일반 건강검진

암 예방검진

혈압·콜레스테롤

당뇨

시력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 항목	진행 전	진행 후
당뇨	진행 전	42%p 감소
심혈관 질환 발생률	진행 전	18%p 감소

\*본표는 건강검진이 총합하거나, 미리 미리 건강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